◇해동화엄의 시조인 의상이 신라의 산사에서 강설하는 장면 (義相圖 제4권).

◇승혜스님

◇김지견박사

◇김경남씨

'화엄연기' 국내 첫 번역 소개

원효·의상스님 정진 중생교화 생애 조명

日고산사 소장 회화집·해설·논문등 수록

일본 화엄종은 신라 화엄종의 조사인 원효와 의상을 그들 최고의 종조사(宗祖師)로 추앙했으며, 두 스님의 행장을 담은 여섯권짜리 두루마리 그림을 그려 국보로 남기기까지 했다.

원효와 의상의 입당구법(入唐求法) 과정과 귀국후의 정진, 중생교화에 전력하는 생애를 그림과 해설(畵贊)로 엮은 〈화엄연기;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이 서울 법융사(주지 승혜)에서 국내 처음으로 번역 출간,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회권물(繪卷物)전집〉(角川書店 刊) 제7권 〈화엄연기〉를 정신문화연구원 김지견 교수가 감수하고 정신문화연구원 석사과정(화엄학 전공)을 수료한 김경남씨가 번역한 이 책에는 미술사 문학 건축 공예 풍속 선박관계의 전공학자들이 각자 〈화엄연기〉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들을 실어 학술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일본 고산사(高山寺)에 소장되어 있는 〈화엄연기〉는 1200년대에 완성된 일본 국보로 가마쿠라시대에 묘에(明惠; 1173~1232)가 구상하고 에니치보 조닌(惠日房成忍)이 그렸으리라고 추정되는 작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회화집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게다가 고산사는 원효와 의상의 인물화를 모셔 놓고 명신(明神)으로까지 추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지견박사는 "일본 화엄종 승려인 묘에가 중국스님도 일본스님도 아닌 신라의 원효 의상 두 스님을 모델로 해서 카마쿠라 '승구(承久)의 난'으로 흉흉해 있던 민심을 수습한 것은 신라 불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자인 김경남씨는 "선의 묘사가 경쾌하고 색채가 풍부해서 가마쿠라기를 대표하는 두루마리 그림의 하나로 손꼽히며 일본의 여러 고승회전(高僧繪傳) 중에서도 그 주제를 신라의 화엄에서 취한 점이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화엄연기〉는 지난 93년 김지견박사가 동경대 문학부에 객원교수로 가 있을 당시, 법융사 승혜스님과 신도들이 일본불교를 순례하면서부터 국내 소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김박사가 순례의 마지막 방문지인 고산사에서 〈화엄연기〉와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 간행하는 것은 절 한 채를 짓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공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자 승혜스님이 이 불사를 적극 지원하면서 국내에 빛을 보게 된 것.

승혜스님은 "이 불사를 계기로 불생불멸하여 인연생 인연멸(因緣生 因緣滅)하는 법계의 장관이 펼쳐진 화엄사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융사와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은 지난 10일 잠실롯데호텔에서 동국역경원장 월운, 금강선원장 혜거, 운문사 주지 명성스님과 불교방송 조해형사장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인간석가' 상·하 다까하시 지음

부처님 출가·성도과정 상세히 설명

화제의 책

"고뇌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석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뇌 가운데서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함으로써 붓다가 된 것입니다."

일본의 독창적인 불교사상가이자 과학자인 다까하시 신지(高橋信次)의 〈인간 석가〉는 기존의 부처님일대기가 제자들의 행적 위주로 기술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처님의 출가와 성도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깨달음의 과정과 내용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마음의 발견〉 〈마음의 원점〉 〈原說 반야심경〉에 이어 번역 출간된 다까하시의 이번 저서도 철저한 체험에서 우러난 깨달음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다.

역자인 김해석 시인(진선한의원장)은 "이 책을 통해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정법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내 각권 6천5백원〉

'시공불교총서' 1·2권 발간

총 10권계획 고대불교 변모 철학적 조명

시공사는 시공불교총서 제1, 2권으로 〈고타마 붓다의 생애〉(E. H. 브루스터 편저·박태섭 역)와 〈붓다의 옛길〉(피야닷시 저·한경수 역)을 동시에 펴냈다.

시공불교총서는 2500여년전 인도사회의 정치 경제 철학적 배경속에서 형성된 사고체계인 불교가 어떤 철학적 논리적 비판으로 사상적 변모를 거쳤는지를 조명하는 시리즈물.

현재 제3권으로 〈경전의 성립과 전개〉(미즈노 고겐 저)와 제4권 〈불교철학사〉(D. J. 칼루파하나 저), 제5권 〈불교심리학〉(루네 E. A. 요한슨 저), 제6권 〈유식입문〉(다카사키 지키도 저) 등을 출간 준비중에 있다.

새로나온 책...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편집부 엮음)=인연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터득시켜 행복한 가정과 풍요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는 각해보살의 상담법문 도움집. 부부인연편, 부모자식편, 질병치유편, 고부관계편, 장래진로편, 수행상담편 등 구체적인 사례를 모았다.

〈정토 6천5백원〉

▲물정존승다라니경(정원봉 편역)=〈佛頂尊勝陀羅尼經〉은 부처님께서 선주천자에게 단명과 삼악도의 과보를 면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다라니로서, 능히 모든 죄업등의 장애를 제거하고 온갖 더럽고 악한 세계의 고통을 깨뜨리게 하는 경이다.

〈정우서적 2천원〉

▲그림으로 보는 육도윤회와 지옥(진동일 글·그림)=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 등 육도윤회의 세계를 보기드문 그림과 사진, 예화, 꽁트, 교리설명을 곁들여 재미있게 소개했다. 〈백양 1만2천원〉

▲과학과 철학(김용정 저)=

현대과학과 문명에 대한 철학적인 반성과 통찰을 담고 있으며 생태윤리에 대한 계몽적인 논문도 실었다. 특히 불교등 동양사상과 현대과학과의 접맥을 시도한 글도 다수 실려 있다. 동국대 김용정교수(철학과)는 세계적인 정보화의 확산은 동서사상의 교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범양사 1만5천원〉.

▲선화의 세계(최순택 저)=중국과 일본의 유명한 선화들을 중심으로 작품이 내포하는 선사상을 조명했다. 선화가 갖는 종교적인 성격과 선화의 독특한 양식을 규명, 선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돕는다.

〈학문사 1만2천원〉

제원스님 「이제는 그물에…」 우학스님 「저거는 맨날…」

생활수행다룬 두스님 수필집

제원스님(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과 우학스님(관음사 주지)이 수필집 〈이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목)과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종은인연)를 나란히 펴냈다.

제원스님의 〈이제는…〉은 미국 종교법인 법주사 이사장이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불교인클럽 회장이기도 한 스님이 생활의 주변속에서 수행하며 관찰한 평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미국에 머물던 동안 버지니아의 W.N.V.C. TV를 통해 강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나'라는 생각때문"이라는 제원스님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림없는 삶을 살자"고 말한다.

영남불교대학장을 맡고 있는 우학스님의 〈저거는…〉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치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진리를 담백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우학스님은 "우리의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의 끝없는 세월과 함께 하고 우리의 육신은 동서남북의 온 공간에 열려져 하나로 존재하기에 깨달음에는 안팎이 없고,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그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2	달을 듣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3	기도	일 타	효 림
4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5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6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7	훨훨 털고 같이 가세	서 암	정 토
8	능엄경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9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	법 륜	모 색
10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 비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성철스님 '백일법문'

전 정 봉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장)

부처님 중도사상 쉽게 정리

선의 바른길 명쾌하게 제시

내가 처음 〈백일법문〉을 만난 것은 2년전이다.

미국의 워싱턴대학에 특별세미나가 있어 참석차 가려는 12월 초순경, 그날은 오랫만에 서울에 눈이 내렸다. 서울에서 미국여행을 하려할 때면 언제나 기내에서 읽을 책을 한권 가지고 가는게 습관처럼 되어있기에, "무슨 책을 가져갈까?" 망설이며 서재에서 서성거리니까 아내가 나에게 권한 책이 바로 성철스님의 법문을 책으로 엮은 〈백일법문〉이다.

아내는 법명이 '여의주' 보살이다.

책가방속에 〈백일법문〉 상권을 넣고 출발하여 기내에서 읽었다. 처음엔 특별한 관심이라던가 그 무슨 기대나 사명같은 것을 가지고 읽은게 아니었는데,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또하나의 커다란 감동의 세계가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듯한 새로운, 정말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철스님의 불교관을 만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나혼자 정형화하고 있던 불교에 대한 의식이 또하나의 사상이 되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을 느꼈다.

성철큰스님은 이미 선을 실참실수하셨으며 또 교를 두루두루 섭렵하셨다. 당시 사부대중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많아서, 불교의 근본입장을 중도사상의 실천에 두고서 기초적인 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당시에 확립된 여러 주장들을 널리 소개하면서 선의 바른 길로 곧장 나갈 것을 간곡히 말씀하신 책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중도사상에 중심을 두고서 인도의 원시불교에서 시작하여 중관, 유식등의 사상, 그리고 중국의 선종과 우리나라의 선종사상과 오늘, 선문이 나아갈 길을 언급해 두신 것이다.

그것은 진정 일백개의 해가 솟아있는 법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가끔,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될 때에는 이 〈백일법문〉속에 있는 아주 좋은 말씀들을 인용하거나 설명하여 이야기를 끌어가기도 한다.

흔히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교나 유교나 도교등 다른 종교나 철학과 같지 않느냐고 혼동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이해할 수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나도 과거의 편협된 중도사상을 시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백일법문〉을 통하여 나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중도란, 일체 만법, 일체 모든 진리를 융합한 우주의 근본원리임을 미약하나마 조금 인식하게 되었다.

책을 다읽고 워싱턴 댈러스공항에 내리니 그곳엔 수년만에 폭설이 내려 하얀 은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아! 여기도 부처님의 나라! 편안하다.

화제의 책

일봉 : 지안이도 머리가 히여 지는구나
지안 : 수미산 새벽 안개입니다.
일봉 : 엄동설한에 웬 도라지 꽃이냐?
지안 : 축생의 묘비인가 합니다.
일봉 : 잠초에 거름은 주었느냐 ?
지안 : 청 솔가지에 불을 붙여 연기만 먹습니다.
일봉 : 대바구니에 물을 가득 담았는데…
지안 : 개구리 천지드니 쥐들이 날뛰겠군요.
일봉 : 빨래나 하려나…
지안 : 봉화대에 불 지필까요?
일봉 : 그려… 그럴꺼야.

해는 왜! 서쪽에서 떠서 꼭! 동쪽으로 지나

출판사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

해는 꼭! 동쪽으로 왜! 서쪽에서

값7,000원

글쓴이 유 용 주

도서출판 무심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19-8 임진각빌딩 3층 전화 : 02)416-2324 팩스 : 02)417-7781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난치병,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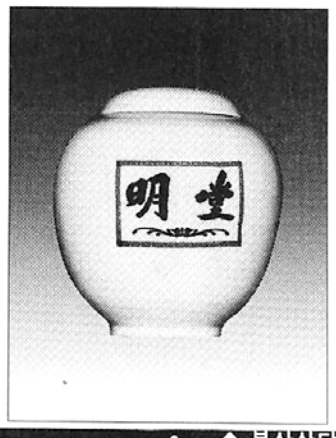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묘지상담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황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접수 : (02) 3401 -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